

石谷 李奎峻의 『浦上奇聞』과 石谷의 對西洋 認識

박상영, 한창현, 안상영, 이준규¹, 권오민

한국한의학연구원 문헌연구센터, ¹부산대학교 한문학과

A Study on Seokgok Lee Gyujoon's *Posangkimun*(浦上奇聞) and His Perception of the Occident

Sangyoung Park, Changhyun Han, Sangyoung Ahn, Junkyu Lee¹, Ohmin Kwon

Medical History and Literature Research Center, Korea Institution of Oriental Medicine

¹Department of Korean Literature in Chinese Characters,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content of *Posangkimun* on the whole and to report the understanding of Seokgok Lee Gyujoon on western civilization. Through the overall analysis of *Posangkimun*, it is found the following facts:

1. *Posangkimun* aroused interest of academic circles as it covered theories of western civilization. Most of the introduction to western civilization contained in the book is related to astronomy and geography. Seokgok criticized all the western theories on revolution of the earth, astronomy, continents and oceans on the ground that these theories were not congruous with the teaching of the Oriental sages.
2. Seokgok found the reasons why the West had led the East from 'nationalism' of the West. The nationalism mentioned here were more similar to 'democracy' in modern sense, or rather 'democratism'. What is specially noteworthy is that he did not find the reasons of western advancement from the spiritual issues not from the machine civilization. In this way, Seokgok could avoid the fallacy of throwing away traditional ideas to concentrate in western machine civilization.
3. The content of *Posangkimun* shows that Seokgok was a person with a very conservative view. Notwithstanding his inclination, he had good knowledge about western theories, most of which were gathered from newspapers and magazines at that time. It means that newspapers and magazines should be treated with more importance when studying Korean intellectuals in late Joseon period or during the time of Japanese forced occupation.

Keywords : Seokgok, Lee Gyujoon, *Posangkimun*(浦上奇聞), theories of western, democratism

I. 서론

石谷 李奎峻(1855-1923)의 扶陽論은 東武 李濟馬의 四象體質醫學과 함께 한국의학의 지형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곡의 학문과 사상에 대한 연구¹⁾는 의학분야에서 임상

의학적인 접근을 제외하면 그다지 폭넓게 전개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또한 많은 부분의 연구가 의학 쪽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은 醫術을 餘技로 여기고 儒學者로 자임하였으며 그에 걸맞게 각종의 經書 註解와 『石谷心書』·『石谷散稿』 등의 文集 등 인문학 관련 서적 수집 권을 낸 바 있는 문인이자 학자인

1) 石谷 李奎峻 관련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남일, 「Lee Kyu-joon's study on Hwangdineijing in the late Choson era」, 대한원전전사학회지, 1996;10(1).
 황원덕, 「石谷 李奎峻의 扶陽論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999;12(2).

접수 ▶ 2010년 6월 30일 수정 ▶ 2010년 7월 23일 채택 ▶ 2010년 7월 29일
 교신저자 권오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99-2 LG에클라트 308호
 Tel 02-790-2016 Fax 02-795-2015 E-mail fivemink@kiom.re.kr

석곡의 위상에는 다소 걸맞지 않는 듯한 인상이 든다. 게다가 최근에는 그의 주 활동지였던 浦港을 중심으로 그의 생애를 탐구하고 추모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학계에서 그러한 움직임에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²⁾ 다행히 최근에 이르러서야 그의 문집인 『석곡산고』 관련 번역 및 연구가 진행되면서 그의 철학 사상의 기초를 이루는 학맥과 학적 연원 등이 파악될 수 있었다.³⁾ 석곡의 학문과 사상에 대한 조명이 부진했던 것은 무엇보다 그의 저작에 대해 번역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그간 학회지를 통한 연구발표가 전무했던 석곡 이규준의 『浦上奇聞』에 대한 전반적 검토와 함께 석곡 이규준이 가졌던 서양에 대한 인식 태도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가 지녔던 서양에 대한 인식도 그의 철학 체계 내에 포섭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본고를 통해 석곡 이규준에 대한 연구지평을 한의학계 이외로 확장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성과들이 모여 훗날 석곡 이규준에 관한 연구가 茶山 丁若鏞(1762-1836)과 마찬가지로 문학, 철학, 의학 등에서 다학제적 접근이 이루어지길 바라마지 않는다.

II. 본 론

1. 포상기문의 서지사항

『포상기문』은 1권 1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918년 상해에서 간행한 연활자본⁴⁾이 국립중앙도서관, 전남대학교 도서관 등에 남아 있다. 이 판본에는 중국인 峯石 張麟年의 서문과 崔海潤의 발문이 붙어 있다. 현재는 이 판본이 가장 널리 보급되어 있다. 그리고 표지에 『石山人別錄』이라고 되어 있는 등사본⁵⁾이 있는데, 여기에는 서문과 발문이 빠져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포상기문』의 異名이 『석산인별록』이며 石谷의 다른 號가 ‘石山人’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⁶⁾ 또 필사본 가운데 『석곡심서』와 합본되어 전하는 것⁷⁾이 있다.⁸⁾ 문제는 이 3종의 판본 모두에 오탈자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筆耕을 하거나 간행을 할 때에 經書 등에만 익숙한 한학자들이 새로운 신사조나 문물 등이 소개되어 있는 다소 복잡한 내용의 서적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여 생긴 문제가 아닌가 여겨지는데, 번역 및 연구에 있어 연구자가 특히 유의해서 접근해야 할 부분 가운데 하나이다.

2. 포상기문의 내용

『포상기문』의 전체적인 내용 이해를 위해 목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일련번호는 편의를 위해 필자가 부기하였다.)

- 1) 권오민, 「이규준의 심기철학과 부양론의 연관성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2005.
錢超塵, 『『素問大要』研究』,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6;19(3).
정수경, 「석곡 부양론의 한방부인과 임상응용을 위한 의학적 고찰」,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2006.
권오민, 박상영, 안상영, 한창현, 안상우, 「석곡산고 번역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9;22(3).
권오민, 남성우, 안상영, 박상영, 한창현, 안상우, 「석곡산고 번역 연구Ⅱ」,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9.12;22(4).
안상우, 민족의학신문, 고의서산책(221), 「石谷心書」.
안상우, 민족의학신문, 고의서산책(407), 「石山人別錄」.
안상우, 민족의학신문, 고의서산책(209), 「浦上奇聞」.
안상우, 민족의학신문, 고의서산책(154), 「醫鑑重磨」.
안상우, 민족의학신문, 고의서산책(70), 「素問大要」.
안상우, 민족의학신문, 고의서산책(71), 「素問句讀俗解」.
- 2) 실학자 이규준 100년만에 부활(HCN 창사 16주년 대규 제작), 경북일보, 2009년 12월 8일. <<http://www.kyongbuk.co.kr>>
동해면민 숙원 '석곡도서관' 개관, 경북일보, 2009년 3월 30일. <<http://www.kyongbuk.co.kr>>
- 3) 권오민, 박상영, 안상영, 한창현, 안상우, 「석곡산고 번역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9;22(3), p. 205. “이규준은 자신 학문의 일단이 퇴계학맥이 아닌 기호학맥에서 연원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규준은 교남, 즉 영남지역에서의 기호학과 계보를 栗谷 李珥 - 尤庵 宋時烈 - 梅山 洪直弼 - 臨齋 徐贊奎와 立軒 韓運聖으로 정리하고 자신이 서찬규에게 나아가 배웠다고 적고 있다.”

- 4) 이규준, 『浦上奇聞』, 1918,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5) 이규준, 『石山人別錄』, 한국한의학연구원 소장.
- 6) 『포상기문』의 발문을 보면 石谷을 ‘石山老人’이라 칭하고 있다. 포항 석곡 유택 현지조사(한국한의학연구원, 2009.05.14-2009.05.15)에 따르면, ‘石谷’이라는 마을 이름과 그에 따른 이규준의 號는 그가 거하던 山의 형세에서 나왔다고 한다. 석곡이 살던 곳의 산이 돼지의 형상과 비슷하다고 하여 ‘뚫골[豚谷]’이라 불렀는데, 흙이 와전되어 ‘돌골[石谷]’이 되었고, 나중에는 아예 한자어로 ‘石谷’이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보자면 ‘石山人’이 석곡을 가리킨다는 것은 한층 명료해진다.
- 7) 이규준, 『石谷心書』, 한국한의학연구원 소장.
- 8) 현재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의고전명저총서DB에서 웹서비스 중인 『석곡심서』가 이 판본이다. <<http://jisik.kiom.re.kr/>>

1) 與嶠南教育會員朴晶東·李根中等(己酉七月日)
(교남교육회원 박정동·이근중 등에게(1909년 7월))

嶠南教育會가 보내준 『嶠南教育會雜誌』를 읽고 쓴 편지이다. 石谷은 嶠南教育會가 서양 학문을 아무런 비판 없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전통사상과 섞으려 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특히 曆法과 天文學에 대한 논의가 두드러진다. 여기에서 石谷은 동양의 聖人이 만든 역법에 근거하여 서양의 역법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다. 서양 역법에 대한 비판은 다른 근거보다는 그 역법이 동양 성인의 그것과 대치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양 문명의 우수성은 기계를 다루는 것에 국한되기 때문에, 유교의 정신적 바탕 위에서 기계문명의 장점만을 취해올 것을 권한다.⁹⁾

2) 西人地球說辨(서양인들이 땅이 둥글다고 하는 학설에 대한 변증)

『漢城旬報』에 소개된 갈릴레이에서 비롯된 서양의 천문학에 대해 비판한 글이다. 『易』·『書經』 등의 典據를 들고 陰陽의 이론에 근거하여 땅이 둥글다는 학설, 지구가 돈다는 학설 및 서양의 천체관 일체를 비판하였다. 이 글에서 석곡은 서양 천체관을 邪說로 단정 짓고 있으며, 이러한 학설이 橫行하는 까닭은 동양에 성인이 나오지 않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3) 五洋五洲辨(五洋 五洲에 대한 변증)

五洋과 五洲에 대한 설명과 비판을 한 글이다. 五洋은 太平洋·大西洋·印度洋·南氷洋·北氷洋이고, 五洲는 亞細亞洲(아시아)·歐羅巴洲(유럽)·亞弗利加洲(아프리카)·澳大利亞洲·亞米利加洲이다. 석곡은 오양과 오주가 서양인이 인위적으로 안배하여 나누어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여긴다.

4) 地球五證辨(땅이 둥글다는 5가지 증거에 대한 변증)

서양에서 정리된 지구가 둥글다는 다섯 가지 증거에 대한 변증이다. 서양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만약 영국 앞바다에서 배를 출발하면 서쪽으로 미국에 이르게 되고, 또 서쪽으로 가면 일본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가면 상해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가면 인도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가면 백해를 지나 다시 영국 바다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땅이 평평하다면 반드시 배를 돌려야만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해안의 높은 언덕에 올라 망원경[大千里鏡]으로 들어오는 배와 떠나가는 배를 살펴보면, 들어오는 배는 먼저 돛대가 보인 후에 선체가 보이고 떠나가는 배는 먼저 몸체가 보이지 않은 후에 돛대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만약 땅이 평평하다면 보일 때는 다 보이고, 보이지 않을 때는 다 보이지 않을 것이다. 셋째는 中京에서는 해가 卯正에 뜨고 영국에서는 해가 未正에 떠서 낮밤이 서로 정반대인 것이다. 넷째는 밤에 어떤 별이 머리 위에 떠 있는데, 남쪽으로 적도 아래로 내려가면 머리 위에 떠 있던 그 별이 다리 아래로 떨어져 있고 다른 별이 머리 위에 떠 있게 되는 것이다. 다섯째, 월식이란 것은 땅의 그림자가 달을 가리는 것인데, 월식이 일어날 때에 달을 가리는 그림자가 둥근 모양으로 보이니 땅이 둥글다는 것이 더욱 분명히 증명되는 것이다.”¹⁰⁾ 석곡은 이에 대하여 동양의 전통적 이론을 들어 비판을 하고 서양 이론이 잘못 되었다고 주장한다.

5) 地球問答(땅이 둥글다는 학설에 대한 문답)

땅이 둥글다는 학설에 대하여 대구의 한 서당의 선생, 그리고 석곡 휘하의 鄭曦鎔, 尹顯泰, 徐丙五 등과 나눈 문답을 기록한 글이다. 석곡은 땅이 둥글다는 학설의 오류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해주고 있으나 오늘날의 자연과학 상식과는 많은 부분 대치된다.

9) 이규준. 『浦上奇聞』. 「與嶠南教育會員朴晶東·李根中等(己酉七月日)」 “서양인의 장점은 기계 등 도구를 잘 만드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사치스럽고 지나치게 교묘하여 모두 사용하지 못할 지경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하나의 큰 전쟁터가 되었으니 병기를 정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공자가 제시한 방법을 최상의 가르침으로 삼고 옆으로 서양인의 기계와 기술을 취한다면 時務의 핵심을 얻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西人之所長, 惟器機利用而已. 其淫奢極巧, 不可盡用. 然今學天地爲一大戰國, 兵器不可不修也. 若以孔子之術爲宗教, 而傍取西人之機技, 則可謂得時務之要矣.]”

10) 위와 같은 책. 「地球五證辨」 “地圓之證有五. 一. 發船英海, 西至米國, 又西至日本, 又西至上海, 又西至印度, 又西過白海, 還到英國海. 若地平, 則必回船, 然後乃還故處矣. 二. 登海上高岸, 以大千里鏡, 望見來船去船. 來船先見桅竿, 後見船身. 去船先不見船身, 後不見桅竿. 若地平, 則見則俱見, 不見則俱不見矣. 三. 中京日出卯正, 英國日出未正, 晝夜相反矣. 四. 夜行有一星當頭, 而南至赤道外, 當頭星落在腳下, 更有別星當頭矣. 五. 月食者, 是地影之所遮也. 月食時, 所遮之影見圓, 則地體之圓, 尤爲明證矣.”

6) 時事新論圖略 (시사신론 도략)

티모시 리차드(Timothy Richard, 1845-1919)의 『五大洲地球計』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비평을 가한 글이다. 서양의 지리학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하고, 지도 등을 제시해 놓았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各國幅員英方里 (각국의 면적)
- (2) 各國人數圖 (각국 인구도)
- (3) 各國識字人 (각국의 文解率)
- (4) 自北京至各省里數日期圖(走土路) (북경 기준 省의 성도와의 거리 지도(육로))
- (5) 自英京至各國里數日期圖(走鐵路) (영국 런던 기준으로서의 각국 거리와 소요 일수(철로))
- (6) 自上海至各處里數(火輪船) (상해 기준 세계 각처의 거리(증기선))
- (7) 五洲全圖 (오주전도)
- (8) 十二月日躔及中星圖 (12개월 동안의 해의 궤도와 중성에 관한 그림)
- (9) 二十八宿盖天畧圖 (12수와 개천 약도)

7) 日躔說 (일전설)

태양의 궤도에 대한 설명이다. 『書經』의 「堯典」 등을 인용하여 서양의 학설을 비판하였다.

8) 海潮說 (해조설)

밀물과 썰물에 대한 설명이다. 海潮의 원인에 대한 기존 학설 가운데, 海鱗의 출몰, 곤어나 붕새의 飛潛이라든지 해조가 천지의 숨결이라든지 하는 학설들을 모두 비판하고, 해조가 달의 盈虛와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 宋나라 余靖(余襄公)의 학설을 취하였다. 이는 오늘날의 자연과학에서 해조를 해석하는 것과 일치한다.

9) 讀西史 (서양 역사를 읽다)

梁啓超의 『中國魂』 가운데 서양 역사와 관련된 부분을 소개하고 비평하였다. 『중국혼』은 우리나라의 張志淵(1864-1921)이 다시 출간을 하게 되는데, 석곡은 장지연과 친분이 있었으므로, 장지연이 출간한 판본을 읽었을 가능성이 높다. 주된 내용은 서양에 비해 동양이 뒤처지게 된 경위에 대한 것인데, 석곡은 이를 秦始皇 이후로 공자의 사상을 계승하지 못한 탓이라고 보고 있다.

10) 日人德富猪一郎『遊支錄』辨 (일본 언론인 도쿠토미 이치로의 『遊支錄』에 대한 변론)

도쿠토미 이치로¹¹⁾가 공자에 대한 비판 글을 신자, 공자의 당시 상황에 대해 유가 경전 등을 제시하여 공자를 변론한 글이다.

이상의 내용을 주제에 따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주제에 해당되는 위의 항목은 번호로 부기하여 넣었다.

<Table 1> 주제에 따른 『포상기문』의 내용

주제	항목
세계지리	3), 6)
지구변증설	2), 4), 5)
천문, 자연현상	1), 7), 8)
역사와 문명	1), 9), 10)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은 대부분 서양의 천문지리 학설을 비판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양 학설에 대한 비판들 모두가 유가적 사상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책 전체는 유가 학설에 대한 변론과 유가적 이상 구현에 대한 회구 등으로 읽을 수 있다.

3. 포상기문에 나타난 석곡의 서양 인식

석산 노인이 지은 이 책은 신학문을 따랐다고 평가하자니 이치와 현상에 어긋나는 서양인들의 지구설을 크게 논박했고, 구학문을 고수했다고 평가하자니 요순시대의 이상적 정치와 흡사한 서양인들의 민족주의를 크게 칭찬했다. 법을 굳게 지키고 있으면서도 시대에 따른 응변의 내용도 갖추고 있고, 강개하면서도 지조가 있고, 통하면서도 말뼉로 흐르지 않으니, 어찌 우뚝히 기갈찬 선비가 아니겠는가?¹²⁾

11) 도쿠토미 이치로[德富猪一郎] : 1863-1957. 호는 蘇峯이다. 흔히 德富蘇峯라 불리는데, 경성일보 사장을 지낸 일본 언론계의 거물이다. 대표적인 제국주의 인사로, 일본맹주론을 주장하였다. 중국을 여행하고 난 뒤에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유지록』을 지었다.

12) 이규준. 『浦上奇聞』. 「跋」 “石山老人之是書, 謂之從新, 則大斥西人地球之說之違於理象; 謂之泥舊, 則大許西人民族主義之近於堯舜時代. 經而能權, 剛而有守, 通而不流, 豈非卓犖奇偉之士哉?”

『포상기문』 발문의 일부이다. 이 글은 이 책의 내용을, 당시 사람의 시각에 의해서이기는 하지만, 아주 잘 표현하고 있다. 특히 “신학문을 따랐다고 평가하자니 이치와 현상에 어긋나는 서양인들의 지구설을 크게 논박했고, 구학문을 고수했다고 평가하자니 요순시대의 이상적 정치와 흡사한 서양인들의 민족주의를 크게 칭찬했다”라고 한 구절은 이 책을 온전히 압축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신학문을 따른 것도 아니고 구학문을 따른 것도 아니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파악한다면, 이 책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면 이 책의 제목이 의미하는 바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들어가기로 한다.

『浦上奇聞』은 말 그대로 ‘포구 가에서 들은 기이한 이야기들’에 대한 글이다. 여기에서 ‘기이한 이야기’란 다름 아닌 서양에서 들어온 각종 학설을 의미한다. 일찍이 『포상기문』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서양의 학설, 예컨대 천문학, 지구설, 자전설, 서양의 역사에 관한 설 등이 소개되어 있다는 면에서였다. 그러나 이 책은 발문에서 소개되었지만, 서양 이론들에 대한 찬양이라든가 단순한 호기심을 가지고 기이하게 여기는 논조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석곡은 커다란 경계심을 가지고 西勢東漸을 눈여겨보고 있다. 때문에 서양에서 들어온 천문학 이론, 땅이 둥글다는 학설, 땅이 돈다는 학설, 세계가 오대양오대주로 이루어져 있다는 학설 등에 대해 모두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경학 연구에서 원시 유가로의 회귀, 유가적 이상 구현 등을 추구했던 그의 세계관과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석곡이 서양의 학설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취한 것은, 다름 아니라 서양의 학설이 동양의 성인의 학설과 배치된다는 면에서였던 것이다. 다음 글을 보자.

서양인이 말하는 理學이나 化學의 이론을 가지고 우주의 신비한 이치를 시원스레 파악할 수만 있다면 서양에는 과연 참 성인이 있고 伏羲氏軒轅氏 이래로 중국의 선왕들은 모두 성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니, 젊은 후배들이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에 나아가 서양인을 스승으로 삼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저들의 천문학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파악한 것이 으뜸입니다. 양력이 옳다면 음력은 틀린 것이고,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옳다면 蓋天說¹³⁾은 틀린 것입니다. 이것은 물과 불, 얼음과 솟이 같은 곳에 있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융합할 것이며, 어떻게 뒤섞겠습니까, 만일 북희씨와 헌원씨 등의 제왕들이 천문과 지리의 원리를 몰랐다면 그 나머지 본성과 천명에 관한 이론, 윤리와 예법에 관한 설명은 모두 인간이 억지로 안배한 것에 불과하니 어찌 영원히 준수해야 할 법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젊은 후배들이 본성을 바꾸고 윤리를 버리며 전통 복장을 버리고 옛 서적을 훼손하면서 오직 서양인을 스승으로 삼는 것이 진실로 당연합니다.¹⁴⁾

윗글에서 우리는 인간외부의 존재적 문제와 인간 윤리의 가치문제를 一途連續上에서 파악해낸 이론에 대한 석곡의 갈구를 읽을 수 있다. 사실상 오늘날은 상식이 되어버렸지만 존재의 문제를 규명하는 자연 과학은 가치중립적이며, 그러한 면에서 윤리를 다루는 범주와는 일정 정도 거리를 유지한다. 그러나 儒學에서 뚜렷이 드러나는 사항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치의 문제와 존재의 문제가 混淆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세상만물에 대해 通曉한 사람이 세상만물의 이치를 사람에게 적용한 것이 윤리적 규범이 된다. (물론,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자면 세상 만물의 이치와 사람의 윤리적 규범과는 별개일 수 있지만) 따라서 세상에 윤리적 규범을 만든 성인은, 세상만물에 達通해야 하며, 그 때문에 성인이 주장한 학설이 서양의 학설과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서양의 학설이 그르고 동양의 학설이 옳다는 결론을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포상기문』 말미에 소개된 『遊支錄』이 석곡에게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지 가늠할 수 있다. 그 글에서 도쿠토미 이치로[徳富猪一郎]는 유가의 어떤 일과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유가의 聖人인 孔子 자체를 비난하였기 때문이다. 석곡은 이 글에 대해 『春秋』·『公羊傳』·『史記』 등의 전거를 인용하며 일일이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이 글 마지막에 석곡은 비분강개한 어투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14) 이규준. 『浦上奇聞』, 「與嶠南教育會員朴品東·李根中等(己酉七月日)」 “若使西人所謂理學化學之說, 能洞見天地之機奧, 則西方果有眞聖人, 而中洲先王自羲軒以下, 皆不足爲聖人也, 新進之去舊就新, 惟西人是師, 不亦宜乎? 彼天文之說, 莫察於地球, 夫陽曆是則陰曆非是, 地球是則蓋天非是, 是猶水火冰炭之不同處也, 將何以融合乎? 何以混同乎? 若使羲軒諸帝不知天文地理之原, 則自餘性命之論倫禮之說, 皆不過人爲之安排, 何足爲萬世常典? 新進之換性命去倫禮, 棄冠裳毀墳籍, 而惟西人是師, 固其所也.”

13) 蓋天說 : 중국 周나라 때의 우주관이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 하여 天圓地方이라고 표현했다.

나는 이렇게 답한다.

공자의 도덕이 아니면 책을 읽을 수 없고, 공자의 도덕이 아니면 말을 감히 할 수 없고, 공자의 도덕이 아니면 행동을 감히 실천할 수 없고, 공자의 도덕이 아니면 예악을 쓸 수 없고, 공자의 도덕이 아니면 문장을 지을 수 없다. 오직 仁愛로 덕을 삼고 禮讓으로 행실을 삼아, 형이상학적인 철학은 老莊과 도를 같이 하고 현실적인 문제는 신불해, 한비자와 법을 같이 한다. 이를 실행함이 오래되어 이교도와 잡술을 익힌 사람들로 하여금 감화를 일으켜 개과천신 시킬 수 있다면 서양 오랑캐에게 받은 모욕을 비로소 씻을 수 있을 것이요, 우리 유교의 효능을 비로소 볼 수 있을 것이다. 백성들은 이로써 복을 받고, 만물은 이로써 잘 자라나서 천하가 크게 행복해질 것이다.¹⁵⁾

석곡은 ‘서양 오랑캐에게 받은 모욕을 씻기 위해서는’ 공자의 도덕을 굳게 붙잡을 것을 이야기한다. 이것은 유가에서 흔히 이르는 개인적인 成遂를 넘어 백성과 만물과 천하에 행복을 가져다주는 功效를 발휘하는 것이다. 오늘날 이 말이 다소 허황되게 여겨질 수 있으나, 석곡은 鳶飛魚躍하는 유가적 세계관에 기반하여 이 말을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 기반은 석곡이 파악한 당시 정세와도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는 「讀西史」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독서사」는 양계초의 『中國魂』을 요약해놓은 글이다. 이 글에서는 인류의 시원과 서양 역사의 大概, 그리고 중국이 서양에 뒤지게 된 경위를 적고 있다.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 첫머리를 우선 소개한다.

인류의 시원은 중국이 가장 앞서고, 문명의 창조는 중국에서 발원했다. 유럽과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은 바로 중국의 지류요 후발 주자들인 것이다. 書契¹⁶⁾ 시대 이전은 정확히 고증할 수 없지만, 중국의 문명은 복희씨에서 시작하여 堯舜 임금 시대에 흥성해져서, 三英¹⁷⁾에 전파되었다가

공자에 의해서 집대성되었다. 서방 세계가 개명한 것은 釋迦牟尼에게서 시작하여 예수에서 흥성해졌다가 크롬웰[克林威爾, Cromwell]에서 완성되었다. 중국의 문명은 5천년이고 서방의 개명은 겨우 2천년 내외이니, 서방은 곧 중국의 지류요 후발 주자인 것이다. 그러나 중국 문명은 秦始皇 이후로 찬란한 명맥이 끊어졌다. 중간에 비록 이리 저리 기워보기도 했으나 지금은 거의 없어진 상태다. 서방 세계의 개명은 처음엔 비록 희미했지만 뒤로 점점 새로이 선명해져,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자면 중국의 정치가 도리어 서구열강보다 못한 형편이다. 이는 중국이 개명하지 않아 서가 아니라 바로 중국이 자신의 문명을 스스로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이 중국과 서양 역사의 대세이다.¹⁸⁾

이 글에서는 인류 문명의 시원을 중국으로 보고 있으며, 그 문명이 堯舜임금-夏殷周-孔子로 이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이 찬란한 문명이 秦始皇으로 인해 파괴되었고 이후 회복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서양은 부처-예수-크롬웰로 이어지며 더욱 개명되어 양계초와 석곡 당대에는 중국이 오히려 서양보다 못하게 되었다고 여긴다. 이렇게 중국이 서양보다 뒤쳐진 까닭을 ‘전제정치’와 ‘민족주의’의 차이라고 말하고 있다.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다소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음 글에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때에 중국사상은 모두 백성들을 위할 줄 알고 임금과 신하가 있는 줄을 알았다. 까닭에 조정에는 선을 권장하는 깃발과 실정을 비판하는 나무를 두었으니 이는 백성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다. 『서경』 「夏書」에 “백성은 국가의 근본이니, 근본이 든든해야 국가가 평안하다.” 하였고, 「商書」에 “오직 하늘이 낸 백성이 욕심이 있나니, 군주가 없으면 어지러워진다. 하늘이 총명한 성인을 탄생시킨 것은 바로 이를 다스리게 함이다.” 하였고, 「泰誓」에 “하늘이 백성을 도우사 군주도 만들고 스승도 만들었다.” 하였고, 또 “임금이 나를 길러 주면 임금이지만, 나를 학대하면 원수이다.” 하였다. 이 때문에 요순과 하은주 삼대의 군신들은 서로 경계하고

15) 위와 같은 책. 「日人德富猪一郎『遊支錄』辨」 “曰：非孔子之道德，書不可讀；非孔子之道德，言不敢道；非孔子之道德，行不敢行；非孔子之道德，禮樂不敢用；非孔子之道德，文章不敢述。惟仁愛爲德，以禮讓爲行。高者與莊同道，卑者與申韓同法。行之既久，使異教雜術之人，觀感而革面焉。則外人之侮汚，於斯可雪；吾道之效能，於斯可見。黎民以福，萬物以育，而天下大幸矣。”

16) 書契 : 나무에 새겨서 썼다는 최초의 문자를 말한다. 神農氏가 노끈을 묶어 의사를 표현하는 정사[結繩之政]를 펼치다가, 伏羲氏 때에 이르러 세계를 만들어서 이를 대체하였다는 기록이 『周易』 繫辭傳下와 『史記』 권1 五帝本紀에 보인다. 한국고전번역원 홈페이지 참조.

17) 三英 : 문화를 꽃피운 세 나라란 뜻으로, 여기서는 하은주

세 왕조를 가리킨다.

18) 이규준. 『浦上奇聞』. 「讀西史」 “生民之始，中國最先；文明之化，中國發源。歐米諸國，乃中國之支流晚出者也。書契以前，在不可考，若中國之文明，始於伏羲氏，盛於唐虞，播於三英，而大成於孔子矣。西洲開明，始於釋迦牟尼，盛於耶穌，成於克林威爾矣。中國文明五千年，西洲開明，在二千年內外，西洲乃中國之支流晚出。然中國文明，自嬴秦後失傳。中雖繕補，而至今泯泯。西洲開明，初雖翳蔽，而後益新明。以今觀之，中國治道，反不如西洲之列強，非中國未開明，乃中國自失文明。此中西古今之大勢也。”

서로 타일러 언제나 민생을 主義로 여겼으니, 民族主義는 2천 년 전부터 중국에서 실로 행해온 것이다.¹⁹⁾

윗글에 보이는 民族主義는 19세기 서양에서 풍미했던 이른바 ‘nationalism’과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르며, 오히려 『孟子』에서 자주 거론되는 ‘民本主義’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혼선은 당시 ‘民族’이라는 용어가 지식인들에게 제대로 개념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늘날로 보자면 일종의 용어의 혼동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민족주의’라는 용어는 오늘날로 보자면 ‘민주주의’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음 3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동양의 민본주의가 민족주의보다는 민주주의에 더 가까운 용어라는 것에서 그러하고, 둘째는 인용된 글의 성격을 분석해 보면 그러하며,²⁰⁾ 셋째는 전제정치와 對를 이루는 용어로 민족주의보다는 민주주의가 더 적합하다는 데서 그러하다. 석곡은 다소 길게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

석산인은 말한다.

아! 중국 문명이 失傳된 지 오래라, 전제정치가 우리 백성들을 확대한 지가 지금까지 2천 여 년이 되었다. 저

한 사람의 진시황이 제멋대로 위엄을 행사함에, 분간 없이 명을 내리니 육경의 전적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고, 팽기 서린 노여움을 부리니 수백의 선비들이 흉속에 묻혔다. 漢나라 때의 黨錮의 화, 唐나라 때 清流들이 살육당한 사건, 宋나라 때의 姦黨碑 사건, 明나라 때의 東林黨 사건 등은 모두 진시황의 폭정을 본받아 우리 백성들을 노예로 취급하여 우리 백성들을 마구 무시하였다. 이로 논한다면 백성들의 도적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랄 수 없다. 이것이 오늘날 중국이 서양 열국의 압제를 받는 까닭이다.

아! 중국 인민은 노예의 습성이 몸에 배었으니, 결국 그 君臣과 함께 서양 오랑캐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도 실로 마땅한 것이다. 저 군신이 모두 서양 오랑캐의 노예가 된 것은 바로 이른바 ‘자신에게 나온 것이 자신에게 되돌아간다.’라는 것이다. 노예의 노예가 되어 기꺼이 주인의 압제를 받으면서 자국이 장차 종족이 바뀌려하는 줄도 모르고 있으니, 아! 슬프다.

저 서양은 성인이 출현한 적이 없다. 그리고 風氣가 강폭하여 이기는 것을 제일로 친다. 까닭에 능이 남을 제압하고 또한 남의 제압을 받지 아니 한다. 이것이 민족주의가 조속히 완성된 까닭이다. 그러나 저들의 음험한 본성이 이미 가리워져 개명할 수 없기 때문에 천도와 음양의 이치를 모르고 인성과 윤리의 뗏뗏함을 알지 못해 백성들에게 부자지간의 천륜을 버리게 하고 부부지간의 인륜을 버리게 하고서 종신토록 부지런히 일하여 오직 戰士들을 양성하고 토지를 약탈하기만 한다. 이는 비단 한 나라 백성의 도적이일 뿐만 아니라 실로 천하만국 백성의 도적이다. 그 백성들이 專利를 벗어나자마자 또 전리에 빠지니, 제 아비와 제 자식을 버리고도 알지 못하고, 제 처를 버리고도 알지 못하고, 제 재산을 빼앗겨도 알지 못하고, 제 내장과 골수를 뽑아버려도 알지 못한다. 그러고도 또 “민족개명”을 말하니 이것은 비단 노예의 근성이 몸에 밴 것일 뿐 아니라 실로 가축의 본성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하거늘 도리어 우리 중화문명을 업신여기고 천지를 몰락시켜 우리 神明의 종족을 바꾸려고 한다.

오늘날 하늘이 하늘 노릇을 못하고 땅이 땅 노릇을 못하고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하고 귀신이 귀신 구실을 못하는구나. 아! 천지가 멸망한다면 모르겠으나 천지가 멸망하지 아니한다면 천지의 큰 도적이니 하늘이 반드시 저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나의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귀신에게 물어볼지이다.²¹⁾

19) 이규준. 『浦上奇聞』. 「讀西史」 “當是時, 中國思想, 皆知爲人民有君官, 故朝有進善之旗誹謗之木, 爲民設也. 「夏書」曰: ‘民惟邦本, 本固邦寧.’ 「商書」曰: ‘惟天生民有欲, 無主乃亂. 惟天生聰明是乂.’ 「泰誓」曰: ‘天佑下民, 作之君, 作之師.’ 又曰: ‘撫我者后, 虐我者讐.’ 是故, 唐虞三代之君臣, 相戒相誥, 必以生民爲主義, 則民族主義, 二千年前中國固行之矣.”

20) 위와 같은 곳, “윌리엄 에그몬트[廉額們, William Egmont]는 네덜란드의 일개 망명객으로 다른 나라 병사들을 모집하여 37년간 혈전을 벌인 끝에 스페인의 식민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콜럼버스[牙倫布士]는 스페인의 일개 상인으로 유럽인으로서 조각배에 사람들을 가득 싣고 만 리 길을 네 번이나 항해한 끝에 드디어 아메리카주를 발견하여 신세계를 열었다. 워싱턴[華盛頓]은 미국 대륙의 일개 산간 농부로서 義旗를 세워 대영제국에 항거하여 영국의 식민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그는 대통령제를 창립하고, 끝내 신세계에다 웅건한 나라를 세웠다. 이때 서양의 여러 나라들이 각각 봉기하여 외침에서 벗어나 노예 정치를 혁파하니, 민족주의로 일대헌법을 삼지 않은 나라가 없었다. 이것이 서양 혁명의 대체적 형세이다. 그런데 그 근원을 따져보면 혹 외세가 압박을 가하거나 혹 내정의 압제를 가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러나 천운의 성쇠와 인문의 흥망이 아님이 없다.[維廉額們, 以荷蘭之一亡命, 集旅他國, 血戰三十七年, 卒能脫西班牙之羈軛. 牙倫布士, 以西班牙之一賈人, 爲歐洲人, 滿乃扁舟萬里, 四度航海, 卒覓得米利加洲, 開出新世界. 華盛頓者, 以美壤之一峽農, 建立義旗, 抗其大國, 用脫英軛, 倡立大統領之治, 卒能建雄邦於新世界. 於是, 西洋諸國, 在在蜂起, 脫其外軛, 革其奴政, 莫不以民族主義爲一大憲法. 此西洋革命之大形也. 原其所由, 或自外勢之刺激, 或自內政之壓制. 然莫非天數之乘除, 人文之損益也. (以上因『中國魂』文)]”

21) 위와 같은 곳. “石山人曰: 嗚乎! 中國文明之失傳, 久矣. 專制之虐我生民, 于今二千餘年矣. 彼獨夫之肆威也, 一令之僭, 六經

양계초가 다소 서양에 대해 우호적으로 접근한 반면, 석곡은 아주 강경한 어조로 서양을 공박하고 있다. 그것은 서양에서는 성현이 출현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만, 중국이 현재 뒤떨어진 것은 진시황의 전제정치 때문임은 양계초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 글에서 서양에 동양이 뒤쳐진 것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후진성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은 다소 특이하다 할 수 있다. 석곡이 서양을 감정적으로까지 싫어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기계를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 등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능력의 배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것은 ‘민족주의’, 즉 유가의 ‘民本主義’를 회복해야 할 것임을 말하고 있다. 이는 서양의 문명 발달이 다름 아니라 그들이 당시 시행하고 있는 ‘민족주의’에 의해 가능했던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석곡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러한 사실은 공자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당위를 당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임에 틀림없다. 석곡은 공자 추존으로 말미암아 민본주의 회복을 부르짖었으나, 오늘날의 학설 가운데 서양의 계몽주의 사상과 프랑스로 대혁명이 공자의 사상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을 보면²²⁾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 정치가 이미 동양에는 옛날에 있었을 뿐 아니라 서양보다 훨씬 앞선다고 한 석곡의 말이 그릇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때문에 그 기원에서는 마침내 민주주의와 석곡의 주장이 만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典籍，翻爲薪燎，一怒之狂，數百章甫，化爲坑土。漢之黨錮，唐之清流，宋之姦黨碑，明之東林蔓[黨]，皆效尤於秦政，奴隸我民，草菅我民。以此論之，雖謂之民賊，不可謂過論也。此當今中國之所以受制於西洋列國也。嗚乎！中國人民，習爲奴性，卒與其君臣，并爲外夷之奴隸，固其所也。彼君臣，皆爲外夷之奴隸者，正所謂出乎爾者反乎爾者也。而奴隸之奴隸，甘視其主人之被制，而不知自家之將至於易種之境，嗚乎哀哉！彼西洋，未有聖人之作，而風氣強悍，以勝爲賢。故能以厭制人，亦能不受制於人。此民族主義之速成也。然彼陰性既蔽，不能開明，不知天道陰陽之理，不識民性倫敘之常，使民去而父子，棄而室廬，終身勤動，惟戰士是養，土地是食。此非但一國之民賊，實惟天下萬國之民賊也。其民纔脫專制，又陷專利，去其父子而不知，棄其室廬而不知，奪其財產而不知，饑其肝腦而不知，猶且曰：‘民族開明’，此非但爲奴性，實惟畜性，而乃敢反鄙我華夏，汨滅天地，欲易我神明之種。當今之時，天不能爲天，地不能爲地，人不能爲人，鬼神不能爲鬼神。嗚乎！天地晦滅則已，天地不滅，則天地之大賊，天必滅之。謂余不信，請質神祇。”

22) H.G. 크릴 저. 이성규 역. 『공자: 인간과 신화』. 지식산업사. 1997.

III. 결 론

이상 살핀 『포상기문』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포상기문』은 서양의 학설들을 다루고 있다는 면에서 학계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었다. 이 책의 서양 학설에 대한 소개에는 천문지리 관련 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석곡은 땅이 둥글다는 학설, 땅이 돈다는 학설, 서양의 천문학설, 오대양오대주와 관련된 학설 일체를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는 서양의 諸學說이 동양의 성인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러한 점은 儒家的 思惟 體系 내에서 씌어진 『石谷心書』에서 드러나는 石谷의 一元論이 의학에서는 扶陽論에 그대로 드러나며, 이것이 다시 『醫鑑重磨』와 『素問大要』의 처방들에까지 일도 연속상으로 펼쳐져 있는 것과 동일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석곡은 철저한 유학자였으며 그 사유 체계 내에서 경학 이외에 의학과 새로운 이론들을 받아들여 자기화했던 것이다.

둘째, 석곡은 서양이 동양에 앞선 이유를 서양의 ‘民族主義’에서 찾았는데, 이는 오늘날 ‘民主主義’와 더 흡사한 용어로, 특히 『孟子』에서 강조된 ‘民本主義’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이할 것은 서양이 동양보다 先進的인 이유를 기계문명의 찬란함 등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에서 찾았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석곡은 서양의 기계문명에 경도되어 전통사상을 파기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동양에 ‘民族主義(民主主義)’가 먼저 있었다는 석곡의 주장은, 서양의 계몽주의 사상과 프랑스로 대혁명이 공자의 사상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오늘날의 학설과 많이 닮은 바가 있다.

셋째, 『포상기문』의 내용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자면, 석곡은 서양 학설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 성향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에서 새로 도입된 학설에 대해 적지 않은 지식을 흡수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매체가 대부분 신문이나 잡지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19세기 말에서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지식인에 대한 연구에서 신문이나 잡지가 비중 있는 자료가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 및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이규준. 『浦上奇聞』.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2. 이규준. 『石谷心書』. 한국한의학연구원 소장.
3. 이규준. 『石山人別錄』. 한국한의학연구원 소장.
4. H.G. 크릴 저. 이성규 역. 『공자:인간과 신화』. 지식산업사. 1997.
5. 권오민. 「이규준의 심기철학과 부양론의 연관성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2005.
6. 권오민, 박상영, 안상영, 한창현, 안상우. 「석곡산고 번역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9;22(3)
7. 권오민, 남성우, 안상영, 박상영, 한창현, 안상우. 「석곡산고 번역 연구II」.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9.12;22(4).
8. 김남일. 「Lee Kyu-joon's study on Hwangdineijing in the late Choson era」.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996;10(1).
9. 錢超塵. 「『素問大要』研究」.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6; 19(3).
10. 정수경. 「석곡 부양론의 한방부인과 임상응용을 위한 의사학적 고찰」.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2006.
11. 황원덕. 「石谷 李奎峻의 扶陽論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 학원전학회지. 1999;12(2).
12. 안상우. 민족의학신문. 고의서산책(221). 「石谷心書」.
13. 안상우. 민족의학신문. 고의서산책(407). 「石山人別錄」.
14. 안상우. 민족의학신문. 고의서산책(209). 「浦上奇聞」.
15. 안상우. 민족의학신문. 고의서산책(154). 「醫鑑重磨」.
16. 안상우. 민족의학신문. 고의서산책(70). 「素問大要」.
17. 안상우. 민족의학신문. 고의서산책(71). 「素問句讀俗解」.
18. 동해면민 숙원 '석곡도서관 개관. 경북일보. 2009년 3월 30일. <<http://www.kyongbuk.co.kr>>
19. 실학자 이규준 100년만에 부활(HCN 창사 16주년 다큐 제작). 경북일보. 2009년 12월 8일. <<http://www.kyongbuk.co.kr>>